

序文

金弘姬의 Dissertation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女子는 小生 Video Art를 보고,

1) Performance Art의 延長이다.

2) 그 Performance Art 中에서도 Participatory Art(參加하는 藝術)이라고,

꼭 못을 박은 것이다.

絶對 人種主義者도 民族主義者도 아니고, 또 아니라고, 主張해온 나로서는,

부끄럽게도 어딘지 “핏줄이 켜진다”란 古色言語를 생각했다.

x

x

Canada의 某冊舍에서 刊行할 얘기가 나왔을때, 미국 某冊舍와의 關聯때문에 협력을 못했으나, 萬若 金弘姬가 한국 某冊舍의 總論을 쓰고, 내가 某冊舍의 各論을 쓰면 國際的으로 아랫목을 차지할 수 있는 책이 되리라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곳이란 都大體 女子들의 것이다.

무당도 女子거니와 그를 맞이하는 이쪽도 女子가 主動이다. 우리집에서는

대개 陰 十月, Siberia에서 내려오는 北塞風이 “광” 문짝을 텅텅 부딪치게 하는 晩秋, 初冬の 행사였다. 午後 4時頃 초저녁이 어둑어둑해지고 으시시하게 추어지기 시작하는 무렵에, 머리가 反쯤 쉰 애꾸 무당이, 젊은

見習무당 둘쯤을 데리고 大門을 지나서 內室門 속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아버지, 형, 나 等 男子는 全部 뒷 門 밖으로 避身해야 한다. 여자끼리의

秘儀인 것이다. 어머니, 누이, 메누리 등이 줄을 지어 늘어서서 빌고, 그 비는 隊列 앞을 社會 身分的으로는 賤하나, 이 날만은 勢力이 있는 무당이 들어온다.

쳐량하다라는 말을 英語로 어떻게 翻譯할까?

쳐량하다는 것은 쳐량한 것이지 lonely도 calmly도 아니다. 獨逸語에는 unheimisch란 形容詞가 이에 가깝다. 늑대가 달을 보고 짖는 것을, 까막까막하는 燈臺불을 켜고 어느 시골 行廊房 안에서 듣는 것이 바로 淒涼하다는 말이고, 맞이다.

좌우간 이때쯤되면 부엌의 큰 솥 (그것은 7歲 된 女子 한마리쯤 구어삶을 만한 크기인데 -)에서 양지머리가 스멀스멀 끌이기 始作된다.

그러면 男子는 다- 돌아와도 된다고 下女 傳같이 온다. 우리 三兄弟는 두덜두덜거리면서, 집안에 들어와서, 양지머리국 냄새를 맡으면서, 中斷된 학교宿題를 繼續한다.

무당은 대들보에 昨年에 걸어놓았던 행주를 내려온다. 혈음한 행주에는 날쌔이 가득 붙어있었다. 대들보의 垂直 平面에 날쌔이 一年이나 풀없이, 붙어있었으나, 한알도 떨어지지 않았다. 白氏집은 그만큼 昨一年間 運數가 좋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 奇蹟의 요술풀이는 극히 簡單하다. 卽 혈음한 행주에는 설거지 하고난 澱粉質이 속속드리 스며있었고, 그 행주는, 여간 빨기 以前에는, 그 全體가 良質의 풀이, 되어있는 까닭이다. 더구나, 행주는 베(大麻)인 경우가 많고, 베는 纖維質이 거칠므로, 더욱 쌀을 一年間 固着시키는데 效果가 있었다.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物理的 常識이 없어서 뻔한 妖術에 속아서 無識한 무당에게 大金을 주는구나” 唯物論인 나는, 속에서 깔보면서, 每年 되풀이되는 行事を 년긔이 보고만 있었다.

중얼중얼거리던 무당이 차차 高調해서 녀두리 唄이 된다. 이번에는 부적을 태우고 제웅을 태운단다. 要컨데 아무리 財數가 좋은 집에도 반드시 不吉한 要素가 있으니 人身 御供 代身에 짚으로 만든 人形(所謂 제웅)을 태워서 代償處罰한다는 것이다. 나는 또 속으로 깔보았다. “왜 李朝에는 무꾸리 쟁이가 적어서 亡했단 말인가?”

閔妃도, 高宗의 侍嬪들도 天下의 무당, 무꾸리쟁이, 태주를 다 불러서 고사지내고 救國哀願을 했건만, 그 迷信은 小銃 一身, 科學的 實驗具 一代에도 못 當하지 않았는게 아니냐?“ 나는 더욱 舊式 마나님들을 冷笑하면서, 나의 “칼 맘스”, 나의 “칸트”에 사뭇친다.

이러다 저러다 學校 宿題를 마치고 神이 잡수시고 나서 解禁된 떡이나 골무를 먹기 始作하는 것은 午後 열시나 된다.

대감노리는 아마 子正쫄은 되리라. 너무 소리를 내면 迷信 打破, 新生活運動하는 日本 警察이 올런지도 모른다. 都大體 이 配給時代에 그 야미고기 야미쫄쌀은 어디서 나왔느냐! 조마조마 하면서도 무당은 점점 神이 올르면서 뒷마당 배나무에 고사하고 (가끔 50代 老女가 까막한 가지 끝까지 버선발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큰 솥에서 펄펄끓는 쇠대가리를 꺼내서 머리위에 쓰고 땡땡 땡덕궁, 덩덩 덩덕궁, 싹갈위에서도 추고, 마루위에 1m나 跳躍한다. 그리고 最高潮에 올르면서 그 翫年의 四柱를 본다. 四柱를 어떻게 보느냐하면 부엌의 무지막지한 主刀인 싹갈을 도마위에 세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100年이나 내려온 白氏집 主刀는 이미 칼자루 뒤가 헤어져서 直角形이아니라 圓形으로 달아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세우는 받침이 되는

도마도 또 몇 十年째 달아서 複雜한 圓形이 되었다. 圓形式 칼자루를 역시 圓形式 도마위에 세우는 것은 容易한 일은 아니었다. 前述의 科學的 詐欺와는 判然히 다른 妖術, 卽 귀신이 곱하는 奇蹟에 속한다. 萬若 이 칼이 도마위에 안서면 白氏가 亡하고, 萬若 늦게 서면 장사가 안된단다. 어머니, 高氏집 아주머니, 며누리, 針母, 補藥대리는 藥할머니... 모든 女性들이 쪽들러서서 “白氏집에 福이 오시라”고 歎願하면서 빌기만 한다. 어느 해는 곧 서고, 어느 해는 여

간해 안섰다.

빨리 人民革命이 나서 白氏집이 亡하면 좋다고, 意識이 높았던 나는, 그러나, 정말 亡하면 어떻게 하나하고 걱정이 되서' 熱心히 무당의 손짓만 注視하게 된다.

이 絶頂이 끝나면, 來日 또 추운 아침에 일어나서 東大門에서 鐘路까지 뛰어가야 되겠구나하고 이불속에 들어간다. 새벽이 되서 웃목의 요강에 오줌을 누다. 늦요강이 내 오줌으로 차차 더 웅게 되는 것을 느낀다. 兄들의 오줌이 이미 요강에 半쯤 차 있었을 때에는 내 오줌이, 요강을 들고있는, 손끝까지 올라온다. 내 오줌의 減量이 아주 不快했다.

무당은 아직도 奇聲을 올리고, 어머니는 아직도 같이 밤새웠다.

한국式 長短, 덩덩덩 덕궁(Syncopate가 있는 三拍子)을 꿈속에서 어렴풋이 들으면서 한 두 時間의 나머지 단잠을 맛본다.

나는 아침이 싫었고 지금도 싫다.

巫俗은 밤의 女王, 晩秋의 으시시한 饗宴이었다.

N. J. P.

Paris 1992. 6/5